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교육력 자료 구축 방법 및 문제점 진단*

고 영 우**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교육력 자료를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교육력 자료 구축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교육력 관련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과거 교육력' 자료를 구축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정규 교육 관련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매 조사시점별로 재학중인 학교에 대한 '현재 교육력' 자료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현재 교육력' 자료로부터 교육이력의 변동을 식별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추론 작업을 수행하였다. 세 번째 추론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많은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저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보수적으로 입학 및 졸업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력 변동과 관련하여 정확한 식별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KLIPS의 설문문항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교육력 변동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가능한 몇 가지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1. 서론

개인의 교육이력(educational history)과 관련된 변수는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개인의 학력이 곧바로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다변화로 인해 교육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교육력이 일자리와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경우 교육력과 관련된 설문구조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누락되어 있는 정보도 존재하는 바, 전반적인 교육력 자료의 구축 방법 및 문제점 등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국내유일의 노동 관련 가구패널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자료이다. KLIPS 자료는 크게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한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된다. 가구용 자료의 내용은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 관련 사항, 가

* 본 연구는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된 『패널자료 품질개선 연구(X)』(김유빈 외, 2020(발간예정)) 중 일부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족관계와 세대간 경제적 자원 교류, 주거상태, 자녀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직무 만족 및 생활만족, 구직활동, 노동시장 이동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노동패널 표본에 처음으로 편입된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한 신규 조사사용 자료는 개인용 자료의 모든 정보와 함께 1차 조사 당시 파악했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추가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KLIPS 자료는 가구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등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라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이 교육, 훈련, 연수 등을 통하여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쌓아 가는 과정과 이것이 일자리 진입 및 전직·이직, 그리고 은퇴까지 생애에 걸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개인의 교육이력에 대한 자료구축이 선행되어야 가능해진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개인의 교육력과 관련된 변수는 인구통계학적으로 개인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담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특히, 개인의 학력이 임금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바, 개인의 교육력이 당사자의 삶과 일자리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LIPS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교육력 자료를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교육력 자료 구축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II. 교육력 자료 소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패널자료들이 조사·발표되고 있다. 수많은 패널자료 중 교육력(educational history) 자료를 별도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대표적인 자료는 독일의 사회-경제패널연구(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 이하 G-SOEP)이다. G-SOEP은 종단적(longitudinal) 관점에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이력 및 관련 주제에 대한 조사·가공 변수를 포함하는 BIOEDU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BIOEDU 자료는 주로 G-SOEP 자료 내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 다닐 당시 설문 조사 인구의 일부였던 사람들에게 대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총 90,734명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교육이력 및 최종학위 등을 관찰한 G-SOEP 자료의 일부이다. 이 중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65,016명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에 대한 정보만이 정리되어 있다. 이들은 교육에 참여했거나 진학 등을 경험한 시점에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력 자료 구축에 있어서는 교육 참여 및 상급학교 진학 당시 조사 가구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종단분석에 있어 보다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개인의 나이에 따라 G-SOEP의 BIOEDU 자료에는 다음의 변수들이 포함된다.

-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 (ECEC)

- 초등학교 입학
- 중등학교로의 진학
- 중등학교에서의 첫 퇴학
- 학교를 처음 졸업한 후 중등학교 출석
- 직업훈련에 처음 들어가고 나가는 것
- 첫 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 참여
- 고등교육의 첫 입학 및 퇴학
- 첫 학교 졸업 후 고등 교육 참여
- 사상 최고 수준의 교육 학위 및 마지막으로 관찰된 교육 참여

국내 패널자료 중에서 교육력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자료 (Youth Panel 2007: 이하 YP2007)가 유일하다. YP2007 자료에서 제공하는 교육력 자료는 크게 과거교육력 자료와 현재교육력 자료로 나뉜다. 이 두 개의 교육력 자료를 통해 패널들의 지금까지의 학력 변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교육력 자료를 원표본 및 추가표본에 대해 별도로 모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교육력 자료는 1차년도 조사 당시 회고조사한 학력사항을 모아놓은 자료이다. 중학교 졸업사항에 대한 설문부터 시작하므로 중학생 유형의 경우 응답하지 않는다. 현재교육력 자료는 1차년도부터 12차년도까지 각 조사차수별 조사 당시 현재 재학중인 학교 정보를 모아놓은 자료이다. YP2007 교육력 자료에서 제공하는 주요변수는 다음과 같다.

<과거교육력 자료>

- FEDU : 회고조사와 현재학교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새로 생성한 최종학력 변수로 (1)고졸 미만,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5)석사졸이상을 나타낸다.
- FEDU_Y, FEDU_M : 1차년도 기준 최종학교 졸업년월.
- SCHOOL : 과거 재학학교를 나타내며, (1)중학교, (2)고등학교, (3)첫번째 대학교, (4)두번째 대학교, (5)대학원을 의미한다.
- HISTORY_EDU_UNI2 : 대학생 유형만 응답하는 문항으로 현재 재학중인 학교 외에 다른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 HISTORY_EDU_UNI3 : 대학 경험의 빈도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대학생 유형인 경우는 현재 재학중인 학교를 제외한 빈도를 조사하였다.
(예) 현재 취업자 유형인 패널이 전문대를 졸업 후 다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2회, 현재 대학생 유형인 패널이 현재 다니고 있는 4년제 대학 편입 전에 다른 대학 4년제를 중퇴하였다면 1회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현재교육력 자료>

- W : 조사참여여부 변수로 (1)참여, (2)미참여를 나타낸다.

- FEDU : 지난조사 이후 졸업 상황 변동에 따라 1차년도 최종학력을 업데이트한 변수로 (1)고졸미만,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5)석사졸이상을 나타낸다.
- FEDU_Y, FEDU_M : 각 조사년도별 최종학교 졸업년월.
- SCHOOL : 현재 재학중인 패널의 경우 (1)중학교, (2)고등학교, (3)대학교, (4)대학원 중 한 값을 가지고 있으며, 재학중이 아닌 패널의 경우 (0)비재학 값을 가지고 있다.
- EDU1 : 재학여부 변수로 (1)재학중, (2)휴학중, (3)재학아님의 값을 가지고 있다.
- 편·입학 관련 정보 : EDU3은 현재학교 입학경로, EDU4, EDU5은 편·입학 학년/학기, EDU6, EDU7은 편·입학 년/월, EDU8은 학교소재지를 나타낸다. 응답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조사 당시와 동일학교에 재학중인 패널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으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조사 당시의 편·입학 관련 정보도 같이 제공된다.
- 학교유형 : EDU9은 고등학교유형, EDU10은 대학교 유형, EDU11은 대학원 유형, EDU15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나타낸다. EDU9~EDU11의 변수 역시 동일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지난조사 당시의 학교유형 정보도 같이 제공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교육력과 관련된 변수는 개인의 일생 및 직업력과 연계되어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교육력이 당사자의 삶과 일자리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경제활동을 연계하는 수많은 연구들에서 교육력 자료 구축이 부분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각 연구들은 각자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력 자료를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구축방법 및 구축된 자료의 형태 등이 제각기 다르다. 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해 구축된 교육력 자료는 연구 목적에 맞게 교육이력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정보가 활용된 자료이다. 따라서 이렇게 구축된 다양한 교육력 자료들은 각 연구에서 유용할 정보를 제공할 뿐, KLIPS 자료 전체적으로 패널들의 교육이력 관련 특징들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KLIPS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교육력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전반적인 교육이력(변동)이 갖는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교육력 관련 설문문항 및 변수 검토

KLIPS로부터 교육력 자료를 구축함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는 설문문항은 개인의 정규교육 및 교육력 관련 문항들이다. 정규교육 관련 설문문항은 조사당시 재학중인 고등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력 관련 설문문항은 과거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대학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1차년도 및 4차년도에는 모든 응답자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외 조사에서는 신규패널에게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1> 정규교육 및 교육력 관련 문항

변수 설명	통합변수명
정규교육 관련 설문문항 (모든 조사차수에 모두에게 질문)	
(모든응답자)고등학교/대학교재학여부	p_5101
(모든응답자)재학학교	p_5102
(모든응답자)고등학교명	p_5111
(모든응답자)고등학교유형	p_5112
(모든응답자)고등학교소재지(시/도)	p_5114
(모든응답자)고등학교소재지(시/군/구)	p_5115
(모든응답자)고등학교소재지(국가명)	p_5116
(모든응답자)대학교명	p_5201
(모든응답자)학위과정	p_5202
(모든응답자)대학교유형	p_5203
(모든응답자)대학교전공	p_5204
(모든응답자)대학교소재지(시/도)	p_5206
(모든응답자)대학교소재지(시/군/구)	p_5207
(모든응답자)대학교소재지(국가명)	p_5208
(모든응답자)편입여부	p_5210
(모든응답자)편입학년	p_5211
교육력 관련 설문문항 (1차, 4차는 모두에게, 5차 이후 신규조사자에게만 질문)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고등학교 졸업여부	p_5131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학교명	p_5132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고등학교 재학시작시기(년)	p_5133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고등학교 재학시작시기(월)	p_5134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현재고등학교 재학여부	p_5135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고등학교 졸업시기(년)	p_5136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고등학교 졸업시기(월)	p_5137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고등학교 유형	p_5138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고등학교 소재지(시/도)	p_5140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고등학교 소재지(국가명)	p_5141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고등학교 소재지(시군구)	p_5142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졸업여부	p_5231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명 - 대학교1	p_5241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입학시기(년) - 대학교1	p_5242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입학시기(월) - 대학교1	p_5243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재학여부 - 대학교1	p_5244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졸업시기(년) - 대학교1	p_5248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졸업시기(월) - 대학교1	p_5249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학위과정 - 대학교1	p_5250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유형 - 대학교1	p_5251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전공 - 대학교1	p_5252

변수 설명	통합변수명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소재지(시/도) - 대학교1	p_5254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소재지(시/군/구) - 대학교1	p_5256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소재지(국가명) - 대학교1	p_5255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명 - 대학교2	p_5261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입학시기(년) - 대학교2	p_5262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입학시기(월) - 대학교2	p_5263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재학여부 - 대학교2	p_5264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졸업시기(년) - 대학교2	p_5268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졸업시기(월) - 대학교2	p_5269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학위과정 - 대학교2	p_5270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유형 - 대학교2	p_5271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전공 - 대학교2	p_5272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소재지(시/도) - 대학교2	p_5274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소재지(시/군/구) - 대학교2	p_5276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소재지(국가명) - 대학교2	p_5275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명 - 대학교3	p_5281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입학시기(년) - 대학교3	p_5282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입학시기(월) - 대학교3	p_5283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재학여부 - 대학교3	p_5284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졸업시기(년) - 대학교3	p_5288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졸업시기(월) - 대학교3	p_5289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학위과정 - 대학교3	p_5290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유형 - 대학교3	p_5291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전공 - 대학교3	p_5292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소재지(시/도) - 대학교3	p_5294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소재지(시/군/구) - 대학교3	p_5296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소재지(국가명) - 대학교3	p_5295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명 - 4	p_5301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입학시기(년) - 4	p_5302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입학시기(월) - 4	p_5303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재학여부 - 4	p_5304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졸업시기(년) - 4	p_5308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졸업시기(월) - 4	p_5309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학위과정 - 4	p_5310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유형 - 4	p_5311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전공 - 4	p_5312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소재지(시/도) - 4	p_5314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소재지(시/군/구) - 4	p_5316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소재지(국가명) - 4	p_5315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명 - 5	p_5321

변수 설명	통합변수명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입학시기(년) - 5	p_5322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입학시기(월) - 5	p_5323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재학여부 - 5	p_5324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졸업시기(년) - 5	p_5328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졸업시기(월) - 5	p_5329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학위과정 - 5	p_5330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유형 - 5	p_5331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전공 - 5	p_5332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소재지(시/도) - 5	p_5334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소재지(시/군/구) - 5	p_5336
(1차,4차 모든응답자/5차이후 신규조사자)대학교 소재지(국가명) - 5	p_533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20), 한국노동패널(KLIPS) 1-22차(학술대회용) 통합코드북; 한국노동패널(KLIPS) 홈페이지(<https://www.kli.re.kr/klips/index.do>).

IV. 교육력 자료 구축방법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LIPS의 경우에는 교육력 자료 구축과 관련하여, 조사당시 받고 있는 정규교육 관련 설문문항과 조사당시 이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교육상태에 대한 설문문항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교육력 자료 구축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력 자료를 구축하기에 앞서 교육력 자료의 최종형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력 자료는 목적 및 활용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

<표 2> 교육력 자료 구축 형태(예시)

개인 ID	학교고급	졸업 여부	학교명	입학시기	졸업시기	학교유형	편입 여부	전공계열	학교 소재지
A	고등학교	졸업	OO고교	1993년3월	1996년2월	외국어고			부산 해운대구
A	4년제 대학	졸업	△△대학	1996년3월	2000년2월	일반대학		인문계열	서울 마포구
B	고등학교	졸업	△△고교	1990년3월	1993년2월	인문고 이과			서울 강남구
B	2년제 대학	졸업	☆☆대학	1994년3월	1996년2월	전문대학		공학계열	경기 성남시
B	4년제 대학	졸업	OO대학	1996년9월	2000년2월	일반대학	편입	공학계열	경기 수원시
B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OO대학	2000년3월		일반대학		공학계열	경기 수원시

자료: 저자 작성

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 내에서 학교교급별로 교육이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직업력과 유사한 형태로 구축하기 위한 방법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예컨대, 어떤 개인 A가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다면,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학교명, 입학시기, 졸업시기, 학교유형, 학교소재지 등)와 4년제 대학교에 대한 정보(학교명, 입학시기, 졸업시기, 학교유형, 전공계열, 학교소재지 등)를 각각 수집하여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 B가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이라면,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 2년제 대학에 대한 정보, 4년제 대학에 대한 정보, 마지막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한 정보 등 총 4개의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축된 교육력 자료의 형태를 표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위에 제시된 표와 같이 교육력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KLIPS 자료의 경우에는 위 표와 같은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교육력 관련 설문문항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첫 번째 단계에서 교육력 관련 설문문항을 활용한다. 교육력 설문문항은 과거에 다녔던 학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회고조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KLIPS의 조사 대상인 개인패널에게 전 조사차수에 대해 한 차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수행된다. 구체적으로, 1차년도와 4차년도에는 모든 개인패널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5차년도 이후 조사 차수에는 신규로 조사 대상이 된 개인패널에게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4차년도 기준으로 모든 응답자에게 조사된 교육력 설문을 통해 과거 교육이력 자료를 구축하고, 5차년도 이후 신규패널에게만 조사된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에 처음 참여한 시점 이전 교육이력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KLIPS의 교육력 관련 설문문항을 활용하면, 4차년도 조사시점 이후에 개인단위 설문에 처음으로 포함되는 조사 차수 이전에 경험한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취합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형태의 교육력 자료를 일부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과거 교육력’ 자료라 하겠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과거 교육력’ 자료는 KLIPS의 조사 대상인 개인이 처음으로 설문에 참여한 시점 이전의 교육경험에 대한 회고적 자료이다. 따라서 앞서 <표 2>의 형태와 같은 교육력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KLIPS 설문에 참여한 이후로 경험하는 교육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단계로 정규교육 관련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매 조사시점에서의 교육상태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규교육 관련 설문문항을 활용하면 조사시점별로 재학중인 학교에 대한 정보를 각 연도별로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육력’ 자료라 하겠다.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면 기본적으로 조사시점까지의 교육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 12차년도(2009년)에 신규조사자로 대상이 되었다면, 12차년도(2009년) 이전에 경험한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력 관련 설문문항을 통해 ‘과거 교육력’ 자료에 학교교급별로 구축될 것이며, 12차년도(2009년)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정규교육 관련 설문문항을 통해 ‘현재 교육력’ 자료에 연도별로 구축될 것이다.

다만, 조사패널로 편입된 이후 학교교급이 변화한 경우에는 변동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

전연도 학교교급의 교육상태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 12차년도(2009년)에 신규조사자로 대상이 되었는데, 12차년도(2009년) 조사 당시 대학교에 재학중이었으며 해당 대학교를 (중간에 휴학 없이) 14차년도(2011년)에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진학하여 조사 당시에는 대학원에 재학중이었으며, 이후 16차년도(2013년) 조사 시점 이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개인의 경우에는, 우선 12차년도(2009년) 자료로부터 ‘과거 교육력’ 자료에 졸업한 고등학교 및 재학중인 대학교의 정보(학교명, 입학시기, 졸업시기, 학교유형, 전공계열, 학교소재지 등)가 각각 학교교급별로 구축될 것이다. 그리고 12차년도(2009년)와 13차년도(2010년) 자료로부터 ‘현재 교육력’ 자료에 재학중인 대학교의 정보(학교명, 학교유형, 전공계열, 학교소재지 등)가 연도별로 구축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14차년도(2011년)와 15차년도(2012년) 자료로부터 ‘현재 교육력’ 자료에 재학중인 대학원 석사과정의 정보(학교명, 학교유형, 전공계열, 학교소재지 등)가 연도별로 구축될 것이다. 16차년도(2013년) 조사 당시에는 이미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력’ 자료에 구축되는 정보가 없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형태의 최종 교육력 자료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한 정보(학교명, 입학시기, 졸업시기, 학교유형, 전공계열, 학교소재지 등)가 각각 학교교급별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 ‘과거 교육력’ 자료 구축을 통해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는 확보되었으나, 대학교의 졸업시기는 구축되지 않는다. 대학교 및 대학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특히 입학시기 및 졸업시기 등이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교육력’ 자료로부터 최종 교육력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교육력’ 자료에는 매년 조사 시점에 재학(또는 휴학)중인 학교에 대한 정보(학교명, 학교유형, 전공계열, 학교소재지 등)만이 구축되기 때문에, 해당 학교를 언제 입학하여 언제 졸업하였는지 등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추론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1. 교육력 관련 설문문항 활용 ‘과거 교육력’ 구축

교육력 관련 설문문항을 활용하면, 4차년도(2001년) 이전 및 각 연차별 신규패널들의 과거 교육력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지 여부와 고등학교명, 재학여부, 입학시기 및 졸업시기, 고교유형,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지 여부와 대학교명, 재학여부, 입학시기 및 졸업시기, 대학유형,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력 관련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교육력 자료의 형태와 동일한 ‘과거 교육력’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본 항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1~22차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하여, 4차년도(2001년)의 모든 응답자와 5차년도(2002년) 이후 22차년도(2019년)까지 각 연도별 신규 조사자들에 대한 ‘과거 교육력’ 자료를 구축해 보았다. 구축 결과, 4~22차 조사에 걸쳐, 총 19,458명의 학력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었으며, 이중 각 학교교급별로 졸업 정보가 조사된 개인은 17,167명이었다. 각 조사차수별로 학교교급별 졸업정보가 구축된 사례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조사 시점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고등학교 교육력 정보가 모두 조사된

개인은 17,14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2,653명, 4년제 또는 6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4,775명,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사람은 458명,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한 사람은 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과거 교육력' 구축 결과(졸업현황)

(단위: 명)

조사차수	고등학교	2/3년제 대학	4/6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합계
4	6,506	816	1,432	140	17	8,911
5	145	30	41	3	0	219
6	223	48	74	1	0	346
7	157	32	63	7	1	260
8	142	35	39	2	3	221
9	148	35	50	6	2	241
10	156	24	63	3	1	247
11	134	21	43	4	0	202
12	1,639	271	342	22	7	2,281
13	239	43	91	4	2	379
14	189	49	68	4	1	311
15	162	34	71	5	2	274
16	121	28	62	2	1	214
17	82	24	32	0	1	139
18	144	39	61	4	0	248
19	146	28	69	11	0	254
20	129	38	45	10	0	222
21	6,290	997	1,972	213	36	9,508
22	391	61	157	17	1	627
합계	17,143	2,653	4,775	458	75	25,104

주: 4차년도(2001년)에는 모든 응답자, 5차년도(2002년) 이후에는 신규 조사자를 대상으로 구축된 결과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LIPS) 1~22차 학술대회용 자료.

이와 더불어, '과거 교육력' 자료에는 총 19,458명의 학력에 대한 정보 중 4,033명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 재학중인 학교교급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례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최초 조사시점(또는 4차년도)에 고등학교를 재학중이었던 개인은 2,287명,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을 재학중인 개인은 418명, 4년제 또는 6년제 대학을 재학중인 개인은 1,207명,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개인은 104명,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개인은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사례들의 경우에는 아직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시기 자료는 구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매년 조사 시점에서 재학중인 학교교급에 대한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각 개인의 교육력 변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4> '과거 교육력' 구축 결과(재학현황)

(단위: 명)

조사차수	고등학교	2/3년제 대학	4/6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합계
4	755	256	651	52	9	1,723
5	131	5	8	3	0	147
6	122	9	19	4	0	154
7	84	6	3	3	1	97
8	46	3	12	2	1	64
9	40	3	9	2	1	55
10	46	4	12	0	1	63
11	61	6	6	2	1	76
12	183	39	96	9	1	328
13	53	4	21	2	1	81
14	44	3	15	2	0	64
15	49	3	11	3	1	67
16	47	3	5	0	0	55
17	11	2	3	0	0	16
18	185	2	7	0	1	195
19	35	1	1	0	1	38
20	38	1	3	1	2	45
21	312	62	285	17	5	681
22	45	6	40	2	1	94
합계	2,287	418	1,207	104	27	4,043

주: 4차년도(2001년)에는 모든 응답자, 5차년도(2002년) 이후에는 신규 조사자를 대상으로 구축된 결과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LIPS) 1~22차 학술대회용 자료.

2. 정규교육 관련 설문문항 활용 현재교육력 구축

앞서 언급했다시피, 정규교육 관련 설문문항을 활용하면 조사시점별로 재학중인 학교에 대한 정보가 각 연도별로 구축되는 '현재 교육력' 자료를 구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학(또는 휴학)중인 학교교급 및 학교명, 학교유형, 전공계열, 학교소재지 등의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구축된 '현재 교육력' 자료의 연차별·학교교급별 사례수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4차년도(2001년) 이후 22차년도(2019년)까지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천 4백여명 내외의 사람들이 학교에 재학(또는 휴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7차년도(2014년)에 1,108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적은 수였던 반면, 표본 추가가 이루어진 21차년도(2018년)에 1,863명으로 가장 많은 개인이 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재학생은 454~804명,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재학생은 145~260명, 4년제 또는 6년제 대학 재학생은 449~756명,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은 41~79명,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은 9~19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교육력'에 자료가 구축된 개인 중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에도 진학 및 졸업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피, ‘현재 교육력’ 자료에는 조사 대상이 된 시점 이후에 학교교육에 대한 입학 및 졸업 등에 관한 정보는 구축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 시점 사이의 학교교육의 변동 등을 추적함으로써, 각 개인의 입학 및 졸업 등과 관련된 정보를 유추할 필요가 있다.

<표 5> ‘현재 교육력’ 자료 구축 결과

(단위: 명)

조사차수	고등학교	2/3년제 대학	4/6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합계
4	755	256	651	52	9	1,723
5	561	233	539	53	14	1,400
6	548	242	573	66	16	1,445
7	554	260	557	64	17	1,452
8	540	215	513	60	16	1,344
9	531	196	559	71	16	1,373
10	550	211	567	63	12	1,403
11	565	213	499	59	15	1,351
12	698	209	578	79	13	1,577
13	636	172	564	65	15	1,452
14	591	168	536	45	16	1,356
15	551	177	541	46	16	1,331
16	560	185	538	52	11	1,346
17	454	145	449	44	16	1,108
18	512	177	537	46	17	1,289
19	482	188	517	41	19	1,247
20	524	204	500	41	17	1,286
21	804	235	756	51	17	1,863
22	796	201	731	47	15	1,790
합계	11,212	3,887	10,705	1,045	287	27,136
평균	590	205	563	55	15	1,428

주: 각 연차별로 각 학교교육에 재학중인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축된 결과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LIPS) 1~22차 학술대회용 자료.

3. 조사시점 간 교육력 변동 및 누락변수에 대한 보정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최소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교육력 자료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이 경험한 각 학교교육별로 입학 및 졸업에 대한 정보가 존재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교육력 관련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구축한 ‘과거 교육력’ 자료에는 각 개인이 조사 대상이 된 시점(또는 4차년도) 이전에 경험한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교육, 학교명, 학교 유형, 전공계열, 소재지 등과 더불어 입학시기 및 졸업시기 등의 정보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최종적인 교육력 자료를 구축함에 있어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정규교육 관련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구축한 ‘현재 교육력’ 자료에는 각 조사시점별로 재학중인 학교에 대한 정보(학교교급, 학교명, 학교유형, 전공계열, 소재지 등)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 교육력 자료 구축을 위해 해당 학교교급에 대한 입학 및 졸업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취합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교육력’ 자료에 구축된 개인의 교육력 변동을 식별함으로써, 최종 교육력 자료 구축에 필요한 학교교급별 입학 및 졸업 정보를 유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예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어떤 개인이 12차년도(2009년)에 신규 조사자로 대상이 되었는데, 12차년도(2009년) 조사 당시 대학교에 재학중이었으며 해당 대학교를 (중간에 휴학 없이) 14차년도(2011년)에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진학하여 조사 당시에는 대학원에 재학중이었으며, 이후 16차년도(2013년) 조사 시점 이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경우, ‘현재 교육력’ 자료에 12차년도(2009년)와 13차년도(2010년)에는 재학중인 대학교의 정보(학교명, 학교유형, 전공계열, 학교소재지 등)가, 14차년도(2011년)와 15차년도(2012년)에는 재학중인 대학원 석사과정의 정보(학교명, 학교유형, 전공계열, 학교소재지 등)가 연도별로 구축되어 있을 것이다. 교육력의 특성상 학교교급을 단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위 예시의 개인은 13차년도(2010년) 조사시점과 14차년도(2011년) 조사시점 사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봄학기(3월)를 기준으로 입학과 졸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예시의 개인도 2011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2011년 3월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추에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많다. 대학교 및 대학원의 경우에는 가을학기(9월)를 기준으로 입학과 졸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시점에 따라서 2010년 또는 2011년 8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2010년 또는 2011년 9월에 대학원에 입학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한 졸업여부는 판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학원 석사과정 이후 상급학교(대학원 박사과정)로 진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의 정보가 중단된 것이 졸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졸업 이외 사유 및 중퇴, 또는 이후 무응답 등에 의한 중단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조사년도에 학교교급별 졸업자수를 추정해보았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사차수에 상급학교에 재학중이면서 바로 직전 연도에 해당 학교교급에 재학중이었던 사람의 수를 집계한 것이다. 예컨대, <표 6>에서 5차년도(2002년) 고등학교 졸업생 130명은 4차년도(2001년)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차년도(2002년)에는 (2/3년제 또는 4/6년제 상관없이)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들의 수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22차년도(2019년)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생 4명은 21차년도(2018년)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이었으며 22차년도(2019년)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것으로 조사된 사례수를 의미한다.

<표 6> 조사차수별 졸업자수 추정 결과

(단위: 명)

조사차수 (연도)	고등학교	2/3년제 대학	4/6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합계
5차(2002년)	130	17	11	1	158
6차(2003년)	133	12	9	1	155
7차(2004년)	132	8	6	2	148
8차(2005년)	101	6	10	1	118
9차(2006년)	119	5	7	1	132
10차(2007년)	123	6	9	2	140
11차(2008년)	125	9	13	1	145
12차(2009년)	100	11	12	3	126
13차(2010년)	137	5	11	1	154
14차(2011년)	125	3	6	3	137
15차(2012년)	121	5	3	1	130
16차(2013년)	117	4	9	1	131
17차(2014년)	84	5	2	3	94
18차(2015년)	101	5	7	1	114
19차(2016년)	106	7	7	3	123
20차(2017년)	98	9	7	-	113
21차(2018년)	96	9	7	2	114
22차(2019년)	150	9	6	4	169
합계	2,098	135	142	31	2,401
평균	117	8	8	2	133

주: 각 연차별로 상급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직전연도에 해당 학교교급에 재학중이었던 응답자 사례수를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LIPS) 1~22차 학술대회용 자료.

<표 7>에는 앞서 졸업생수를 추정한 방법을 반대로 적용하여 각 조사연차별로 입학생수를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졸업생수를 추정할 때와 유사하게, 해당 조사차수에 재학하고 있는 학교 교급과 비교하여 바로 이전연도 조사시점에 아래 단계 교급의 학교에 재학중이었다면, 해당 조사시점(정확히 직전연도 조사시점과 해당연도 조사시점 사이)에 해당 교급의 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컨대, 12차년도(2009년) 2/3년제 대학 입학생 37명은 11차년도(2008년)에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었으며 12차년도(2009년)에는 2/3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사례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추정된 입학생수 역시 ‘현재 교육력’ 자료로부터 보수적으로 추정한 결과라 사료된다.

<표 7> 조사차수별 입학자수 추정 결과

(단위: 명)

조사차수 (연도)	2/3년제 대학	4/6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합계
5차(2002년)	62	85	10	2	159
6차(2003년)	46	99	9	1	155
7차(2004년)	62	78	6	2	148
8차(2005년)	33	74	10	1	118
9차(2006년)	41	82	8	1	132
10차(2007년)	51	78	9	2	140
11차(2008년)	59	75	10	4	148
12차(2009년)	37	74	12	3	126
13차(2010년)	40	102	11	1	154
14차(2011년)	44	84	6	3	137
15차(2012년)	46	80	3	1	130
16차(2013년)	55	66	9	1	131
17차(2014년)	30	59	2	3	94
18차(2015년)	34	72	7	1	114
19차(2016년)	42	71	7	3	123
20차(2017년)	49	58	6	1	114
21차(2018년)	36	69	7	2	114
22차(2019년)	43	116	6	4	169
합계	810	1,422	138	36	2,406
평균	45	79	8	2	134

주: 각 연차별로 상급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직전연도에 해당 학교교급에 재학중이었던 응답자 사례수를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LIPS) 1~22차 학술대회용 자료.

이와 같이, 조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에서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바로 발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교급의 학교를 해당 시점(정확히 직전 연도 조사시점과 해당 연도 조사시점 사이)에 졸업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교육력’ 자료로부터 학교교급별 입학 및 졸업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졸업 및 입학 등과 관련된 정확한 시기는 유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나마도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조사되지 않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연속된 조사차수가 아닌 몇 해 지나서 이루어진다면, 해당 교급의 학교를 졸업했는지 여부와 상급학교의 입학시기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KLIPS의 설문문항, 특히 정규교육과 관련된 문항 중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교육력 변동에 대한 정확한 식별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개인의 교육력과 관련된 변수는 인구통계학적으로 개인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담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개인의 교육력이 당사자의 삶과 일자리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교육력 자료를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교육력 자료 구축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KLIPS로부터 교육력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의 정규교육 및 교육력 관련 설문문항들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교육력 관련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4차년도 기준으로 모든 응답자에 대한 과거 교육이력 자료를 구축하고, 5차년도 이후 신규 조사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처음 참여한 시점 이전 교육이력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과거 교육력’이라 구분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정규교육 관련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매 조사시점별로 재학중인 학교에 대한 정보를 각 연도별로 구축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육력’이라 구분하였다. ‘현재 교육력’ 자료에는 매년 조사 시점에 재학(또는 휴학)중인 학교에 대한 정보(학교명, 학교유형, 전공계열, 학교소재지 등)만이 구축되기 때문에, 해당 학교를 언제 입학하여 언제 졸업하였는지 등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추론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추론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많은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저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보수적으로 입학 및 졸업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에서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바로 발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교급의 학교를 해당 시점(정확히 직전 연도 조사시점과 해당 연도 조사시점 사이)에 졸업했음을 유추할 수 있음을 활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 및 입학 등과 관련된 정확한 시기는 유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조사되지 않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연속된 조사차수가 아닌 몇 해 지나서 이루어진다면, 해당 교급의 학교를 졸업했는지 여부와 상급학교의 입학시기 등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KLIPS의 설문문항, 특히 정규교육과 관련된 문항 중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교육력 변동에 대한 정확한 식별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직전연도에 응답한 학교 정보와 조사연도에 응답하게 되는 학교에 대한 정보 사이에 변동이 있는지를 질문한 후, 변동이 있다면 해당 변동을 응답하도록 설문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해당 변동에 졸업 및 입학이 포함된다면, 관련 시기 또한 설문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설문구조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23차년도(2020년) 이후에 응답하는 개인에 대해서만 ‘현재 교육력’에 해당 변동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4차년도(2001년)와 같이 다시 한번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력 관련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과거 교육력’ 자료를 최근 시점으로 다시 구축하는 방법 역시 제안하고자 한다. 하지만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력 관련 설문을 다시 진행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진행된 교육 관련 응답과의 일치성 및 회고조사 문

항 증가로 인한 응답거절 등 직접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